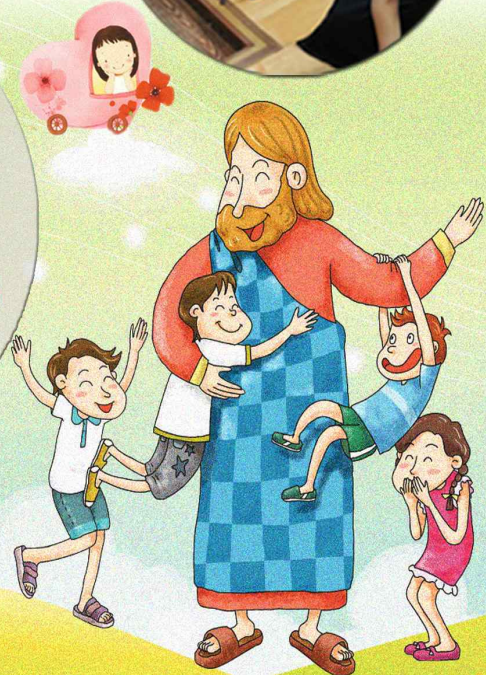


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16호

발행일 : 2017. 7. 30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또 네가 많은 종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장2:2-



<이달의 간증>

김성령 청년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해피바이러스

김성령 청년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 라이프지가 발행되면서 간증과 질문지를 볼 때마다 나는 언제 간증과 질문의 답을 할 수 있을까? 간증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들려 드려야할지, 나 같았으면 이런 질문에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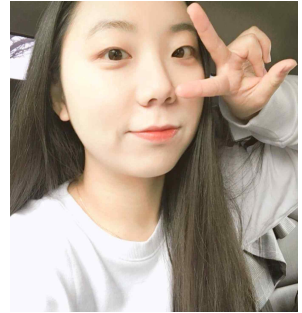
렇게 답했을 텐데' 라며 혼자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증부탁을 받을 때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순복음 라이프지를 통해 제 이야기를 해 보려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속에서 제가 했던 행동은 성전 밟기 곧 기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실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교에 진학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주님께 맡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취업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취업을 놓고 성전 밟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학교를 마치고 성전에 올라와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취업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앙 생활하는데 직장생활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 해 보니 제가 성전 밟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ㅎㅎㅎ

바로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 없는 직장을 주님께 구했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차!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놓고 기도를 시작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이 겹치는 날이 없어졌습니다. 아메이죠? ㅎㅎ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졸업예배 때였습니다. 회사 송별회로 인해 졸업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그날 아침 울면서 회사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ㅎㅎ

그래서 취업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과 병행하기에 적합한 직장을 놓고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처럼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겠죠?

혹시 4월 표어 기억하시는 성도님 계시나요? 4월 표어는 '너의 영성을 회복시키라' 였습니다. 저는 4월 표어를 듣고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3월 회사일과 개인적인 일들로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배 참석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배시간 때는 많은 생각을 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주님 앞에서는 핑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는 나 자신의 위안을 삼으며 신앙생활의 기준을 낮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 눈물의 기도를 평소보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이 옛날처럼 다시금 잘 자리 잡혔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전 밟기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렸는데 응답 해 주셔서 그날 이후로는 무슨 일이 생겨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나, 기도제목이 있으면 성전 밟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저의 기도제목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어떤 배우자를 허락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배우자를 허락 해 주시겠지요? 성도님들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성전 밟기를 통해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해결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께 맡기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우리 당진순복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알아가기>

이신애 성도



1. 고향은 어디인가요?

경기도 김포입니다.

2.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요. 너무 많았어요.

이것 저것 많이 배우고 싶었지요. 율동도 하고 싶었구요.~ 음악도 하고 싶었어요. 꿈 많은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장래 희망란에 선생님이라고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학창시절 성도님은 어떤 학생이었고 그 시절 행복하였나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조용했어요. 선생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던 학생이었구요.

고등학교 때는 관악부에 들어갔었어요. 언젠가는 큰 잘못도 없이 선배님들께 불러갔던 기억도 나요. 불러가서 이유없는 기합도 받고 그랬어요. 그 시절 관악부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었어요. 선배들에게 불러 가서 많이 혼나고 기합 받고 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며 혼자 가슴앓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만 하던 학창시절이었네요.

4. 결혼해서 가장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항상 내편인 사람이 있다는거요.

남편은 절대로 절 배반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5. 비누를 예쁘게 잘 만드시더군요. 주님이 성도님께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없구요. 그냥 잘 하는 척 하는거예요. ㅋㅋ 저는 뭐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6.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방면의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고등학교시절 진로를 고민할 때 실용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비문제 등으로 그 꿈을 포기해야 했지요. 자포자기 하고 그냥 돈을 벌까도 생각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학교는 다니라 하셨어요. 그런데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중 진로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죠.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에 들어갔고 기독교 상담학과를 가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7. 박두식 성도님과 행복한 삶을 이루고 사십니다. 박두식 성도님께서 가장 칭찬했던 나의 요리는?

그냥 다 맛있대요. ㅎㅎ 김치찌개~ 된장찌개도요~ 닭도리탕도 맛있다고 했어요. ㅎ 남편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 주는 대로 다 잘 먹어주었어요.^^

8. 신혼생활이 항상 행복하진 않으시겠지요?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했다면 그 이유는?

싸운 적 없어요. 한번도요. 다툼 적도 없구요. 남편은 온유한 사람이라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화났다가 저 혼자 풀리고 말아요~

9. 새 생명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함께 세운 가족계획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서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저 혼자 생각으론 아들이든 딸이든 두명 정도 생각합니다.

10. 시부모님 사랑 해 주세요.

어머님은요 성품이 좋으시구요. 제게 너무 잘해주세요. 저에 대한 배려가 많으시구요. 아버님은요 이거저거 잘 챙겨주시구요. 제게 너무 잘해 주세요. 용돈도 많이 주시구요^^ 맛있는 것도 이것저것 많이 사주시구요.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지금 받는 이 많은 사랑~~ 앞으로 제가 다 갚으며 두분께 잘 해 드릴거예요.

11. 7월의 표어는 ‘네 한계를 넘어서라’ 입니다. 무엇을 넘어서시겠습니까?

잠이요. 잠을 줄이고 싶습니다. 알차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12. 야곱은 한도씨의 위골을 당하며 축복권을 따냈습니다. 성도님께서 받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언변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알리게 하고 싶습니다.

13. 천정교회와 당진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건 피하게 되더라구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완벽한 당진순복음교회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14. 모태신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께 교회란?

당연히 집이고 안식처입니다.

15. 우리집 가훈으로 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웃고웃고웃고웃고!



"성도님, 목사가 어려우세요?"

"네....."

"목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셔도 안
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
지도
마세요."

"네....."

제가 목사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너무 어려워 말도 잘 못 붙이던 시절
이지요~ 수많은 시간들을 신앙 안에서 함께 공유하며 바라본 목사님은
저 대화랑 딱 맞더라구요. 가볍게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지 않으시고 품
위를 지키시면서도 성도와 결코 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어른들 하고 만
요??? 결코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격
이 없이 지내십니다. 사진은 굳이 안하셔도 될 주일학교 어린이의 구두
를 수선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부모님도 성도들도 보지 못하고 지나친
걸 목사님께서 보시고 자리 잡고 앉으셨네요. 우연히 눈에 들어온 이
광경이 너무 예뻐서 허락도 없이 카메라를 갖다 대었습니다. 우리를 모
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아빠와 딸로 보이지 않을까요? 단아의 다소곳
함에서는 결코 목사님께 함부로 하는 모습도 없네요.~~ 단아 엄마 누구
예요? 가정교육 엄청 잘 받은 예쁜 어린이네요.^^

이건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사랑
으로 대답하시고 성도의 단순 교통사고(큰 교통사고 아닌) 현장에도
지체 없이 뛰어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먹이시기 위해 씬 없이 지금까지 달려 오
셨지요.

이제 중년이 지나셨음에도 당신은 청춘이라 말씀 하시며 학생 청년들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 학교 운동장을 점령하시고 계십니다. 아시지요? 그러시다 병원을 내 집처럼~~ 다니신 것도... 당신 몸보다 아이들에게 축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여기에 교회와 주님나라의 장래를 걸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없이 예뻐서 절로 입가에 웃음이 맴회지만 때론 여간 귀찮은게 아닙니다. 저뿐일까요? 특별히 은사적인 사랑이 있는 분 말고는 대부분 어른들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으신가 봅니다. 실컷 뛰어놀아 땀내뿜기는 아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무릎에 앉히십니다. 나의 두 어린 아이들을 키울때도 그러셨듯 지금도 어린아이들의 친구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또 이제 곧 펼쳐질 천국잔치인 여름성경학교에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하여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 19:13~14)



우리 구역 최고!!

-나눔구역-



사랑하는 나눔 구역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김매월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란 주님의 말씀은 잘 실천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시지요. 감사한 마음을 항상 표현하며 구역장의 말에 언제나 “알았습니다.”로 답해주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 사랑스런 집사님입니다.

박순남 권사님..

누구보다도 구역장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며 구역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큰언니 같은 권사님이시지요. 또한 평소에 많은 성도님들과 교통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구역의 일(예를 들어 중식 등)에 많은 분들의 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박순옥 성도님..

박순남권사님과 자매라라고 해도 될만한 이름을 가졌지요? 구역 식구들을 세심하게 잘 챙기기도 하는 성도님은 김매월집사님을 성심성익껏 잘 돌봐주시기도 합니다. 덩치만큼이나 넓은 마음과 따뜻함이 묻어 있는 든든한 가족입니다.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하지만 아직까지는 흑(우진*-*)이가 있어서 많은 제약등을 받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구역 명단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또 한명의 구역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진이지요^^*
구역의 귀염둥이로 분위기를 띄우는데는 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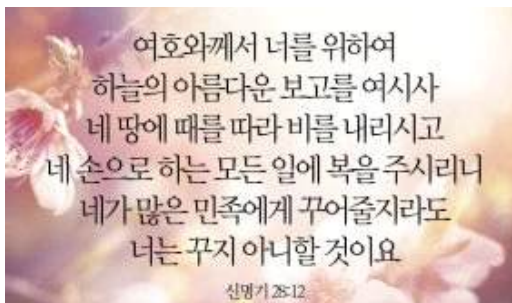
구역식구에게 선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었지요~ 멋지신 우리 주님~ 김매월 집사님의 장막의 축복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무소부제하신 주님께서는 작년에 집사님 가정에 심방말씀을 통하여 장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역식구 모두가 아 니 교회의 모든 분들이 내일처럼 기뻐하며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축복임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가 건강하게 켜는 듯한 여름을 잘 지내며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기초석을 바르게 세우길 원합니다. 또 그 위에 튼튼하 여 어떠한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눔 구역으로 몸과 마음, 영혼육이 모두 건강하며
지금처럼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기쁨만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청자 구역장



THE FEAST OF HARVEST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출23:16)

성경 숨은그림찾기



성경 숨은그림찾기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31-34절)

[숨은그림: 모자, 손, 숫자 6, 물음표, ♪표]

* 선택적 순종

- essay.116 -



* 나의 상식과 경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 순종을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거부하는 행위다!

사랑하는 다니엘 유초등부 친구들아!!

안녕~ 이태권 선생님이야.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점점 더 활기를 띠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분이 좋아.

요즘은 주일에배가 끝나면, 한 자
리에서 너희들과 같이 점심 먹으면
서 이야기 나누는게 제일 행복해.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딱딱하게

말 안하는 거 알지? 어색해도 원래 선생님 말투를 떠올리며 읽어주렴)

우리는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지? 믿기지 않겠지만 선생님도 5학년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주일학교를 졸업했어. 당시에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구옥순 집사님이 담임선생님이셨고, 김종
숙 권사님도 선생님이셨지. 유치부에 계시는 김병연 선생님은 지금 재민이보다
도 어린 아이였고, 전도사님도 무척 젊으셨어~. 처음 하는 성경학교였지만 선
생님은 그날 점심이 비빔밥이었던 것도 기억하고, 김진숙 선생님이 무서운 성
가대 선생님이셨던 것도, 원재욱 권사님이 아이스크림을 퍼주신 것도, 그리고
구옥순 집사님이 나를 안고 기도해주신 것도 다 기억하고 있단다. 아! 그리고
선생님은 두 번의 천로역정에서 십자가도 지켜냈어. 물론 나를 교회로 데리고
온 김정민 청년이 옆에서 다 알려주긴 했지만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언제 지
나갔는지도 모르게 교사가 되었고, 너희들에게 나이가 서른이 넘지 않았냐는
말도 가끔 듣고 있단다. 선생님은 성경학교 때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가끔 떠올려보면
기분이 좋아지곤해.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때를
생각하며,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혜와 정답을 구할때도 있지. 이제는
어린이로써 여름성경학교를 참여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거야. 더운 날씨에서도
모든 선생님들은 멋진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연구하시고 고
민하셨단다.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성경학교를 기억하
듯, 너희들도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행복하게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금요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서 신나게 보내자 안!녕!



<성경 인물 소개>

노아

뜻 : 위로

1) 아담의 8세손

2) 레멕이 182세에 낳고 노아라 이름하니 뜻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수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이 위로한다 하는 뜻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실 표적이다 (창 5:28).

3) 시대가 악하여(눅 17:27) 홍수로 진멸하시고자 하실 때 오직 노아만이 의로운 고로 방주를 만들고 피하라고 미리 지시하셨다.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간 후 40일 동안 비가 내려 창수가 나서 지상의 모든 산을 넘쳐 방주밖에 있는 생물은 다 죽어 버렸다. 5개월 후부터 물이 줄기 시작하여 7개월 만에 완전히 물이 빠지니 꼭 1년 10일을 방주에서 살았다. 방주가 머문 산은 5,185미터의 아라랏 산이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기로 약속하시고 그 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노아는 홍수 뒤에 350년을 더 살아있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 도합 8명이었다 (창 9:).

* 지금 영국의 박물관에는 옛날 니느웨 성터에서 발굴한 비가 있는데 그 비문에 노아 홍수 때 엣나비스들이 서적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엣나비스들이란 노아를 가르친 말이다.

이때에도 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단 특집>

하나님의 교회(안산홍 증인회)

1. 이단정체

안산홍(1918-1985)은 1947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 입교하였다.

1953년 예수재림 시기를 주장하는 “시기파” 운동에 참여했다가

1962년 교단으로부터 탈퇴하여 1964년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립하였다.

1985년 안산홍이 사망하자 총회장인 김주철과 하늘 어머니라 불리는 장길자를 주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들은 거리에서 설문지를 통한 설문지 포교를 하는데 설문지 내용이

“교회의 십자가”, “성탄절”, “세상종말에 대한 견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인식” 등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하나님의 신부라 자칭하는 장길자가 교주이며,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로 개명하였다.

안산홍의 재림을 기다리며, 본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다.

2. 이단사상

① 교주 안산홍은 죽었으나 그들은 안산홍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안산홍 예수님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다윗의 위로 왔는데,

다윗의 재위 기간은 40년이었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만에 돌아가셨으니 나머지 37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홍은 30세에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고 67세에 죽었으니 재림 예수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②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988년 종말이 오며 14만 4천 명 외에 모조로 멸망한다고

주장하여 충남 연기군 소정면 전의산에 모여 안산홍 재림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해를 바뀌가며,

신한부종말론을 성도들에게 유포하여 신도들의 가족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1999년 7월 15일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③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을 얹으로
인침을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성령시대인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으로 온 안산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14만 4천명)고 주장한다.

④ 안식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켜야 하고,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하고,
십자가는 우상이므로 철거해야 하고,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3. 출판물 및 관련단체

멜기세덱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 “십사만사천”과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등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안산홍 증인회, 세계복음화선교협의회의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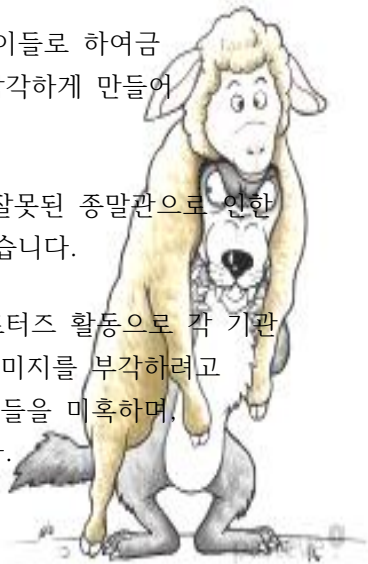
4. 주의점

① 십자가를 철폐해야 한다.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신앙의 바른 개혁의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미혹하고 있습니다.

② 안산홍에 대한 잘못된 우상화와 신격화,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한
과격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③ 최근 사회 봉사활동과 스포츠 행사시 서포터즈 활동으로 각 기관
표창을 많이 받았으며, 대사회적인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를 쓰며, 봉사를 매개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미혹하며,
대학가에도 침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머>

최 권능 목사의 떡 대가리

최 권능 목사가 황해도 곡산군 어느 산골에서 화전민들에게 전도하던 때의 일이다. 깊은 산골에서는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사람을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최 목사는 묘안을 냈다.

“아이구 배야. 사람 살려!”

그는 산골짜기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뒹굴었다. 그러자 인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뛰어와 저마다 물었다.

“배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최 목사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하오. 사실은 배가 아픈게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해본 소리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천국가시오.”

화전민들은 어이가 없어서 “뭘.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거야? 별 떡 대가리 같은 소리 다 듣겠네” 하고 욕을 퍼부어 댔다.

최 목사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웁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예수가 바로 떡 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떡 중의 떡이요. 떡 중에 제일 머리가 되는 떡 대가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은 어느새 최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십자가 위에서 떡으로 제공하셨다.



성경의 진실성

어떤 사람이 마음을 잡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읽어 나가다 보니까 우스운 얘기가 많이 나왔다. 딸 둘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지 않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 다른 사람에게 주지를 않나, 시아버지가 과부가 된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지 않나, 이렇게 요지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은 성경을 집어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지저분한 종교는 믿지 않겠다고 외쳤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직, 간접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경이 아주 도덕적이고 완전한 사람들만 등장하는 드라마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거룩한 책이니까.



그런데 읽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약하고 고민이 많고 실존의 문제에 부딪혀 몸부림치는 죄 많은 존재들이 아닌가? 그들은 우리들처럼 고민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깨지고 부수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 임재 하시어 그들을 회심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들을 성경은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책이요 진실한 책인 것이다.

만약 성경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각색이 된 것이라면 그렇게 쓰여질 수가 있겠는가?

여느 종교 서적치고 거룩하지 않는 책이 없다. 모두가 인간이 누리기 힘든 이상향을 기록하고 있다. 완전한 사람들의 행보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 각색한 흔적인 것이다.

그런 책을 어디에다 쓰겠는가?

꽃이 사랑받는 건

시인 최송연

들녘에 홀로 핀 꽃은
청초해서 아름답고
잘 가꾼 뜰에 핀 꽃은
화사해서 아름답지

그러나

꽃이 진정 사랑받는 건
외모보다 그윽한 향기 때문
꽃 속에 독소가 감춰었다면
저토록 은은한 향기를 뿜어낼 수 없지
향기 대신 독을 뿜어내는 꽃이라면
아무리 화사하고 청초한들 누가 사랑하겠나



<검손>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는 야구 실력 외에도 많은 칭찬을 듣고 있는 좋은 선수입니다. 투수실력도 특급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성도 특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모자를 벗어 심판에게 깎듯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혹 고전하더라도 절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단주 '오말리' 는 박찬호 선수를 '엠베서더' (대사)-'동방예의지국에서 온 외교관' 이라고 부릅니다. 메이저 리그에서 갑자기 스타가 된 다른 선수들 중에는 경기 중 감독이 투수를 교체하라고 사인을 보내면 글러브를 땅에 팽개친다거나, 심지어 입고 있던 자기 유니폼을 찢어 버리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찬호 선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한사람의 고상한 인격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온 세상에 동방예의지국으로 널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을 받습니다. (잠언 22:4)

<지난달 issue>

장마

장마가 끝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어느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려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지 연일 보도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비가 많이 와 지반이
약해져 옹벽이 무너지고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끊임없이 올
고 보도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쏟아져 갑자기 물이 불어나 산이나
계곡 등에 고립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안타가운 뉴스를 접하기
도 하였습니다. 해마다 장마 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사건 사고에 주의하고 항상
뉴스를 보고 들으며 날씨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 까요? 장맛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
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한해 농사까지도 포기해야하는
극한 상황이었고 식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보도 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비를
허락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무더위에 건강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 릴레이

(이종희 집사)

하나님! 편의점 개점을 통해 남편과 함께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
계에서 함께 일하며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남편의 힘듦을 알게 해 주시고
오랜 시간 가져보지 못한 부부만의 소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음 릴레이 하실분:김정애 집사님

시사용어 Briefing

하이구이

중국어로 ‘바다거북’을 뜻하는 단어 ‘하이구이’와 발음이 같은데서 착안해 바다거북이 알을 깨고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온다는 뜻을 담아 해외 유학생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전문직에서 일하다가 중국으로 돌아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기업공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대중에게 분산하고 재무 내용을 공시해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는 것

형식적으로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기업공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소수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분산해 증권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 말하는 기업공개는 상장을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파는 행위이다.

공유경제

물품 등을 서로 대여 및 차용해 쓰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제활동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그의 저서 리믹스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각되었다.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여 자동차나 빈방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 맞춘 합리적인 소비를 하자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스마트폰의 발달이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며, 고집이 비정상적으로 세고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하다. 특히 관심 있는 것에만 강박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 없지만 현재까지 이 질환을 앓는 상당수는 출생 전·중·후에 대뇌 손상을 일으키는 산소 결핍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의 제철음식>

어느덧 8월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8월 제철 음식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먼저 보여드리는 8월 제철 음식은 전복이에요.

전복은 정말 그 효능도 많고 보양식이란 수식어가 있을 정도로
건강이란 키워드를 떠올려보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바다의 명품 전복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음은 물론
맛과 영양도 뛰어나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8월 제철 음식은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 푸드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능력이 정말 좋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피부미용에도 좋고 체중감량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블루베리!
여름에는 시원하게 주스식으로 마셔도 좋고 생과로도 먹어도 딱이에요.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8월 제철 음식은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레드 푸드의 선두주자로 잘 알려져 있죠.

참! 헛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토마토는 엄연히 채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동맥경화와 간경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8월 제철 음식은 수박입니다.

여름 하면 바로 떠올려볼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여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인 수박!

수박에는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런 수박을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주스 혹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썬 후 수박화채로 먹는 방법도 정말 괜찮은 방법 중 하나예요.



오늘은 이렇게 8월 제철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가오는 8월! 오늘 알려드린 제철 음식 드시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헌신예배 / 바울남선 - 8월 6일
사회 : 이병철회장 기도 : 김동연총무
2. 침례식 / 윤홍기권찰 - 8월 3일(목) 오후2:00 영광순복음교회
3. 헌신예배 / 주일학교 - 8월 20일
사회 : 임하영아동 기도 : 정재아아동
4. 밀알청년회 야유회 / 8월 14일~15일
5. DJFGC축구부 1일 서울투어 / 일시 : 8월 7일
대상 : 스페인투어 참가자

◎ 공지사항

1. 8월 생활실천표어 /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라
2. 전국사모연합회 월례회 / 일시 : 8월 17일(목) 오전11:00
장소 : 당진순복음교회
3. 8월 신앙서적 / 엘리트 크리스천이 되는 16가지 비법
박종신목사 저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